

아시아, 실질 GDP 성장률 6%대

ADB, 중국은 8%로 최고수준 ... 중국수출이 아시아 성장 좌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2004-05년 실질 GDP 성장률이 6%에 달할 전망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은 세계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중국이 아시아의 수출창구로 작용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이 최대의 수출국가로 2003년 1-9월 중국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48.7% 증가했으며, 타이완은 111.9%, ASEAN 5개국은 46.1% 늘었다.

중국이 세계 생산거점으로 성장하면서 한국, 일본, 타이완 및 ASEAN에서 전자제품 원료 수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실질GDP 성장률 전망 (단위: %)

구 분	2003	2004	2005
동아시아	5.9	6.5	6.6
중 국	8.5	8.0	7.7
홍 콩	2.7	4.8	4.6
한 국	2.6	5.0	5.8
타이완	3.1	4.4	4.8
동남아시아	4.1	5.1	5.2
캄보디아	5.0	5.5	5.5
인도네시아	3.7	4.0	4.6
라오스	5.5	6.0	6.0
말레이시아	4.5	5.7	5.6
필리핀	4.0	4.5	4.2
싱가폴	0.5	4.5	5.0
타 이	6.3	6.3	5.9
베트남	6.9	7.1	7.1
남아시아	6.3	6.1	6.5
파키스탄	5.3	5.7	6.1
인디아	6.7	6.3	6.7
네 팔	2.3	3.5	3.5
방글라데시	5.1	5.2	5.3
스리랑카	5.0	5.5	6.1

중국은 2004-05년 수출환급조치의 조기추진 및 대외간 접투자의 꾸준한 확대에 따라 수출이 약 20% 신장하고, 수입도 WTO 가입에 따른 수입관세 인하 및 제조용 기계설비 투자확대에 따라 수출을 상회하는 25% 선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04년 GDP 성장률이 8.0%, 2005년에는 7.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 2003년 3/4분기 이후 중국수요 확대 및 선진국의 경제호전 영향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의 경기부양책까지 겹쳐 2004년 GDP 성장률은 5.0%, 2004년에는 5.8%에 달할 전망이다.

홍콩도 중국수출 호조에 힘입어 2004년 4.8%, 2005년 4.6%로 예상되고 있고, 2003년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타이완은 2004년 4.4%, 2005년 4.8%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산하 아시아경제연구소도 2004년 아시아 10개국의 경제성장률이 2003년에 비해 0.8%p 상승한 6.7%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선진시장에

대한 전기·전자제품 수출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8.5%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NIES, ASEAN도 SARS 및 미국-이라크 전쟁으로 2003년에는 0.2%p 하락했으나 2004년에는 5.9%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동아시아 경제는 2003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IT산업 성장에 따라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2004년에는 EU 시장이 2% 전후 성장할 것으로 보여 6.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진시장에 대한 전기·전자제품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중앙정부의 투자억제 정책에 따라 총 고정자산투자가 11.3%로 2003년에 비해 10.1%p 하락하고 수출도 15% 정도 증가에 그치나 경제성장률은 8.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2003년 민간소비 부진에 따라 성장률이 낮아진데 따른 반동으로 4월 총선 이후 설비투자가 되살아나고 IT제품을 중심으로 미국 및 중국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여 5.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타이완은 선진시장에 대한 전기·전자제품 수출이 증가하고 내수가 되살아나 4.3% 성장하고, 홍콩은 실업률이 하락하고 민간소비가 증가하며 중국수출이 호조를 보여 5.1%, 싱가포르의 수출 및 내수호조가 지속돼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Chemical Journal 2004/02/09>